



승호상 건축사

사무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_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4가길 20(동숭동 2-8)

Tel. 02-763-2010 · Fax. 02-745-3606 · 홈페이지 www.iroje.com

1952년생.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비엔나 공과대학에서 수학했다.

15년 간의 김수근 문하를 거쳐 1989년 이로재(履露齋)를 개설하여 현재 대표로 있다.

한국 건축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4.3그룹'의 일원이었으며, 새로운 건축교육을 모색하고자 '서울건축학교'를 설립하는데 참가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빈자의 미학(1996 미건사)'과 '건축, 사유의 기호(2004 돌베개)', '지문(2009 열화당)', '노무현의 무덤/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풍경(2010 놀와)',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2012 컬처그라퍼)',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2016 돌베개)', '묵상(2019 돌베개)' 등이 있다.

1998년 북 런던대학의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서울대학교에 출강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가르친 바 있다. 20세기를 주도한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빈자의 미학'이라는 주제를 그의 건축의 중심에 두고 작업하면서, '김수근문화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여러 건축상을 수상했다.

2019년 아시아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학술예술 1급 십자훈장을 수여받았다. 파주출판도시의 코디네이터로 새로운 도시 건설을 지휘하던 그에게 미국건축사협회(AIA)는 Honorary Fellowship을 수여하였으며, 건축사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2002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건축사 승호상전'을 가졌다.

한국정부는 그의 한국문화예술에 대한 공헌을 기려 2007년 그에게 '대한민국예술문화상'을 수여했으며, 2008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 활약한 그는 서울시 초대총괄건축가로 선임되어 2016년 직무를 마쳤다.

2017년 비엔나 공과대학교 객원교수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석좌교수, 북경 중앙미술학원 초빙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